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17:00 배포 2026. 11. 11.(수) 15:00

이형일 부총리,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각국 재경관 통해 현지 동향 밀착 모니터링 당부

- 이형일 부총리, 취임 후 첫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
- 미국 중간선거, 프랑스 재정위기, 미·이란 전쟁 등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현지 동향의 신속한 공유 당부

이형일 부총리 겸 **재정경제부장관**은 11.11일(수) **재경관 화상회의**를 주재하였다. 재경관은 현재 15개국, 18개 공관*에 파견되어 **주재국 정부** 및 **국제기구**와 **재정경제·금융 분야 협력**, **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** 등 **대외업무**를 **지원**하고 있다.

* 미국(워싱턴 DC, 뉴욕), 중국(북경/상하이), 홍콩, 일본, UAE, 인도네시아(ASEAN), 베트남, 태국, 영국, 프랑스(OECD/파리), 독일, 벨기에, 스위스, 그리스, 러시아

이번 회의는 **이형일 부총리 취임** 이후 재경관들과 **처음 소통**하는 자리로, **주요국**의 **경제정책 동향**을 공유하고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**대외경제 현안**을 **점검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**수출 호조세를 바탕**으로 사상 처음 **수출 1조달러 달성**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, **주요국**의 **통상정책 불확실성**, **유럽의 재정불안, 지정학적** 갈등 등 **대외 위험요인**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**경계**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. 이어 "이러한 성과를 **지속가능한 성장**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외환경 변화를 한발 앞서 읽고, 위험 요인에 **선제적**으로 **대응**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고 강조하였다

특히 "**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지형 변화**가 **향후 트럼프 정부**의 **정책 방향**에 미칠 **영향**을 주목할 필요있다"며 관련 동향과 이에 대한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, **프랑스 재정위기**의 **글로벌 파급 가능성**과 **러·우 전쟁** 및 **미·이란 전쟁** 등 **지정학적 갈등 장기화**에 따른 **국제유가·글로벌 공급망 영향**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, “이러한 **대외 위험 요인**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**면밀히 점검**하고, **새로운 위험 요인**이 포착될 경우 신속히 **본부**에 **공유**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재경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경제·정책 동향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,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최지영 (044-215-7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승환 (95ksh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